

연주자들의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 간의 영향 관계

문재영^o, 한만욱*, 이은지**

^o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e-mail: jaymoon@dongseo.ac.kr, manuktp@hanmail.net, eun.ji.lee@yonsei.ac.kr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Self-efficacy and Performance Confidence

Jae-Young Moon^o, Man-Wook Han*, Eun-Ji Lee**

^oDept. of global business, Dongseo University,

*College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Keimyung University,

**Global Leaders College, Yonsei University

● 요약 ●

영향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자기효능감, 성과 자신감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 자기효능감(Performance Self-efficacy), 연주자자신감(Performance Confidence)

I. Introduction

코로나 이후 연주회가 증가하면서 이전과 달리 연주를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평소 자신의 연주활동과 연주기술의 완성도에 있어 낮은 자신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의 경우에도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지만 연주 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호로비츠(Vladimir Horowitz, 1903-1989) 역시 무대공포증으로 두려움이 컸다고 전해지고 있다(이보영, 2003). 국내에서도 소미희(2001)의 연구에서 연주 시 87.2%가 떨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김준모(2008)의 연구에서도 음악대학 성악과 학생 104명 중 101명이 연주 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김보라(2011)의 연구에서도 전체 음악 대학 연주전공생 중 81%가 불안을 느낀다고 연구되었다. 물론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재개되면서 또 다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제거함과 동시에, 연주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조명희(2010)는 연주자의 심리변인 중 우울과 연주스트레스 변인 모두가 연주만족도(독주, 앙상블)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연주자의 우울, 스트레스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연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심리는 성공적인 연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심리적 변인인 연주불안이나 연주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높은 자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하위 구성내용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해 Sherer, Maddux 등(1982)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Hillman이 개발하고 우희정(1993)과 장근주(2011)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2 연주자신감

연주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Vealey(1986)가 개발하고 이효민(2009)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특성 스포츠 자신감 검사를 토대로 한 정세진(2010)의 무용자신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 이것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하위 구성내용은 무대연주자신감, 연주활동자신감, 연주활동정체감을 포함한다.

III. Research Method

연구대상은 연주자를 대상으로 건반악기, 성악, 관현악 전공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였으며, 배부완료 후 수거한 설문지 중,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중 기입되었거나 일부 문항이 누락, 응답 내용이 극히 부실했던 경우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do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세부적인 통계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요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즉 일반적 응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인 연주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도구인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 척도의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해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일반적 특성(전공, 전공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전공, 전공경력)에 따른 연주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자기효능감과 연주자신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자기효능감이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Research Result

연구결과,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가설검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s α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V.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음악 전공자들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연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수집한 설문 조사 자료의 처리 및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REFERENCES

- [1] A.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 L. Berry,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Vol. 49, No. 4, pp. 41-50, 1985.